

보도시점 2024. 4. 30.(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4. 4. 29.(월)

녹조 발생 예방 위해 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일환, 야적퇴비 관리 4대강 전 수계 확대
- 녹조 대량 발생 시기 직전 축사 밀집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 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했으며,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녹조 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한상우 (044-201-7076)



☐ 추진 배경

- 녹조중점관리대책 일환으로 야적퇴비 관리를 '23년 낙동강 수계 시범운영에 이어 '24년부터 4대강 이수계로 확대하여 추진중
- 특히, 녹조 대량 발생 시기 직전에 주요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녹조 예방 효과 제고 및 경각심 고취

☐ 그간 추진경과

- 유역·환경청 주관 야적퇴비 사전 현황조사(2~3월) 결과, 관리 대상 야적퇴비 892개 조사(공유지 395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497개)
- 공유지 내 야적퇴비는 수거토록 조치명령, 부적정 보관 야적퇴비는 적정관리 제도·덮개 보급 등 관리 중(매월 지자체별 실적 보고)

☐ 특별점검 개요

- (점검기간) '24.5 ~ 6월중 ※ 기간중 청별 별도 계획하에 3~5회 실시
- (점검기관) 환경부, 유역·환경청, 지자체 합동
- (점검대상) 사전 조사(2~3월) 결과 야적퇴비 다량 적치 구간, 공공 수역 인접 축사 밀집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
- (점검내용)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

☐ 행정 사항

- 유역·환경청별 야적퇴비 특별점검 세부계획 수립·추진(5~6월) 및 추진 결과 보고(→수질수생태과, '24.7.1(월)까지)